管 区 事 務 所
〒162-0805
東京都新宿区矢来町65番
電話　(03)5228-3171
FAX　(03)5228-3175

日本聖公会

NIPPON SEI KO KAI

PROVINCIAL OFFICE
65, Yarai-cho, Shinjuku-ku
Tokyo 162-0805, Japan
Tel. 81-3-5228-3171
Fax. 81-3-5228-3175

일본성공회 주교회 교서
모든 섹슈얼리티*의 존엄, 생명이 지켜지기 위하여

일본성공회의 친애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성공회공동체에서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의견과 입장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단에 대해 우리 일본성공회 주교회는 비통함을 느끼며, 또한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내에서의 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윈저 보고서 (2004 년 10 월)에 대한 일본성공회 주교회로서의 응답 가운데 "동성애자의 성직안수를 삼가하도록 결의한 같은 람베스 회의는 공동체의 주교들이 실제로 동성애자의 목소리를 듣도록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을 바라며, 또한 "일본성공회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성경 텍스트 자체는 어느 시대적 신앙적 맥락안에서 태어난 것이다."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2005 년 2 월)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로 2022 년 개최된 람베스 회의, 특히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람베스 콜의 협의와 채택에 이르는 과정을 경험하고 2023 년 일본성공회 선교협의회의(생명의 현장에서 듣다)프로그램을 통해서, 또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주교회의 배움의 시간, 나아가서 의견교환의 기회를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세이프 처치 가이드 라인에서의 제언도 아울러, 다시 한번 현시점에서의 일본성공회 주교회로서의 견해를 표명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교회가 섹슈얼리티의 모든 것에 대해 같은 견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 메시지를 일본 성공회의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우리 일본성공회 주교회는 모든 섹슈얼리티가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축복을 받은 평등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일본성공회의 구성원들이 그 섹슈얼리티에 의해 차별받거나 신앙공동체로부터 배제되거나 하는 일이나 존엄성이 위협당하는 일체의 언동에 대해 우려하고, 그러한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과 배려의 자세를 보여주고 계심을 모범으로 삼아, 하느님이 만드신 생명은 다양성을 포함하고, 모든 생명은 하느님으로부터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성공회 주교회는 동성 커플의 축복이나 동성혼에 대해서, 중요한 과제로서 앞으로도 깊게 배워가며 착수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성공회의 활동과 결정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를 더욱 함께 기도하며 구해 나갑시다.

2024 년 2 월 8 일

일본성공회주교회

＊섹슈얼리티란

성에 관련된 종합적인 개념으로, 인격적인 요소나 타인과의 관계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자인, 성표현,성적지향, 연애지향, 신체적성 등을 말합니다.